

지역학습에 있어서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 제주 지역교과서 분석을 사례로 -

남호엽* · 김일기**

The Relation between Regional Identity and National Identity in Regional Learning

- A Case Study of Regional Textbook in Jeju Province -

Ho-Yeop Nam and Il-Ki Kim

요약 : 본 연구는 지역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지역교과서는 지역학습의 자원이며, 다른 지역과의 영역적 차이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 지역정체성을 재현한다. 교육과정 수준에서 지역학습의 교육인간상은 지역정체성의 함양을 추구하지만, 민족국가로서의 정치적 단일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른바 민족적 단일성은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이 융합된 양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 고유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례 지역의 교과서에서는 민족과 지역 간의 상보성이 왜곡되어 있다. 예컨대, 지역의 통상적인 담론세계에서 유교문화경관은 타자이지만, 학교 교과서에서는 동일자이다. 또한 지역교과서에서 대외적인 영역화의 경계는 주로 지역이라기 보다는 민족이고, 민족의 변방으로 지역에 대한 장소감을 낮고 있다. 즉, 제주 지역교과서에서 지역정체성은 민족정체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학습에서 온당하게 다루어져 할 지역정체성의 추구가 주변화되고 있다.

주요어 :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 동일시, 경관, 영역, 지역학습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regional identity and national identity in a regional textbook in Korea. In geography education, regional textbooks are curriculum materials which represent regional identity based on territorial difference from other regions. In local curriculum level, the harmony between national unity and regional identity is to be pursued as educational objective. However, this harmony appears to be distorted in the school textbook in Je-Ju Province, a case region. For example, Confucian cultural landscapes are represented as otherness in regional discourses, but togetherness in the regional textbook. Also, the regional textbook implies that the boundary of external territorialization is mainly not regions but nations, and it seems to intend that learners get a sense of place towards their region as periphery of nation. Therefore, we argue that regional identity, which must be stressed in a regional textbook, is marginalized in a case region.

Key Words : national and regional identity, identification, landscape, territory, regional learning

1.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역학습은 교육과정의 지역화라는 관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지역에서 발행된 교과서를 통해서 지역적인 것에 대한 내면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단지 지역에 있는 것을 교육의 과정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만 의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지역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 한국교원대학교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학습자의 당사자적 관련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삶의 형식을 가르치려고 한다. 즉, 지역학습은 지역에 전개된 공간질서와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추구하고 있다(김일기, 1983). 다시 말해서 학습자들이 발 딛고 있는 생활공간이 간직하고 있는 문명적 삶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조건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통한 지역학습의 실천은 지역간의 차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역들이 단지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만이 아니라 각 지역사회의 주체로도 성장하게끔 의도하고 있다. 여기서 각 지역간의 차이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하며, 서로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각 지역의 교육과정은 다른 지역과의 영역적인 차별성에 바탕하여, 일종의 구별짓기 행위라는 측면에서 지역적인 것의 고유성, 지역정체성을 표출시키고 있다(박승규 · 김일기, 1998; 박승규 · 심광택, 1999).

그런데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실행된다고 할지라도, 민족국가로서의 정치적 단일성을 배제하는 정도는 아니다. 교육과정에서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이 다루어질지라도 민족국가의 지위를 고려해야 할 실정이다. 요컨대,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지역학습의 실천은 민족국가 수준에서의 정치적 단일성과 지역 수준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사이에서 조화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어느 한 쪽을 향해 일방적으로 경사되거나 양자 택일의 문제는 아니고 상보적인 관계설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민족과 지역 간의 스케일적 고려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도 그러한지는 검토된 바 없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 정책을 추진할 때, 민족과 지역 사이의 관계를 상호 조화의 견지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다(김일기 외, 1998).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각 지역의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고유성이 상대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교과서를 사례로 하여 민족과 지역 간의 관계추구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검토한 자료는 제주 지역의 교과서이다. 제주 지역에서 집필되고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아름다운 제주도}라는 제목의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는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4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또다른 검토자료는 제주지역의 담론들인데, 이것은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역연구 결과물들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목적에 비추어 연구자료를 분석할 때, 사용한 방법은 비판적 담론분석법과 도상학적 분석법이다. 전자는 자료의 내용서술을 분석하고, 후자는 자료의 삽화 및 사진을 분석하였다. 비판적 담론분석법이란 사회제도들에서 작동하고 있는 언어와 담론에 대한 연구이며, 여기서 담론이란 '삶의 형식'으로서 세계를 알고 가치를 부여하고 경험하는 방식들이다(Luke, 1999). 이 분석법은 사회적 관행의 형식으로 쓰여지고 말해진 '담론'을 이해하려고 한다. 지역교과서와 지역연구 결과물을 비판적 담론 분석법으로 검토할 때, 이 두 가지는 정체성 텍스트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정체성의 담론적 구성을 분석할 때, 분석의 의미범주는 내용·토픽, 전략, 언어적 수단들과 실현 형식들로 구분할 수 있다(Cilla et al., 1999). 여기서 내용·토픽이란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대한 감성적 애착, 집단적인 정치사의 내러티브, 공동문화의 담론적 구성, 집단적 현재와 미래의 담론적 구성, 민족 및 지역적 실체(body)의 담론적 구성이 그 사례이다. 전략이란 특정 정체성들의 담론적 구성, 지속, 변형 그리고 해체에 관련되는 사안들이며, 구성적 전략, 영속화와 정당화 전략, 변형 및 해체전략 등이다. 예컨대, '서울이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라고 규정될 경우, 이는 고정관념적 일반화를 통해 단일성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언어적 수단과 실현 형식들은 정체성의 담론적 구성에 관련된 다양한 언어적 양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인칭대명사 '우리'의 사용은 내부적으로 포함의 상황을, '그들'의 사용은 외부적으로 배제의 상태를 보여준다.

연구자료 중 교과서의 삽화 및 사진은 교육적인 의미관계를 가시적인 경관 이미지로 드러낸다. 이때 경관이란 환경을 재현·구조화·상징화하는 시

각적인 방식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이미지이며 독해의 대상이다(Daniels & Cosgrove, 1998). 도상학적 분석법은 이러한 경관의 의미관계를 독해하는 방법이며, 파노프스키에 따르면 전(前)도상학적 기술, 도상학적 분석, 그리고 도상해석학적 분석으로 구분된다(Panofsky, 1955).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 대상의 '일차적인 또는 자연스러운 모티브'를 확인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차적인 또는 관습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경관이미지의 '본래적인 의미 또는 숨은 내용'을 해석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초등학교 제주 지역교과서를 전도상학적 기술로 보자면, 문화재 학습을 추구하면서 내용서술과 함께 관련사진들을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경우를 도상학적 분석으로 보자면, 유교문화경관, 불교문화경관, 민속문화경관의 순서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상해석학적 분석으로 검토하자면 유교문화경관이 중심적이며, 이는 민족정체성을 의식한 경관의 선정 및 재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연구자료를 비판적 담론분석법과 도상학적 분석법의 견지에서 검토하고 난 뒤, 연구자료들 사이 의미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즉, 지역교과서와 지역담론 간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이해작업도 병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텍스트성이란 지역교과서와 지역담론 각각을 하나의 텍스트로 규정하고 그 의미를 확인할 때, 양 자가 주고받는 의미효과이다(Cloke, 1999: 47). 예컨대, 지역적인 것의 의미관계가 지역교과서와 지역담론에서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가 검토사안이다. 만약에 서로 차이가 있는 의미관계를 보여줄 경우, 차이의 원인에 대한 추론작업을 통해서 반성적인 가치판단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교과서라는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규명하는 과정은 교육과정의 지역화 정책에 대한 평가작업이 될 수 있다.

2.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시공간적 구성

1) 동일시 경관의 영역화와 정체성의 형성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이라는 말은 동일성(同

一性)이라고도 번역되는데, 반대어는 타자성(他者性)이며 어원은 '같은'을 뜻하는 라틴어 idem이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외관상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모습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 자기동일성의 문제가 곧 정체성의 문제이다(Clement, 1994). 정체성은 무엇에 대한 동일시 과정의 특정 국면, 즉, 무엇과 같거나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일련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다(Hall, 1992). 페쉴(Pêcheux)의 동일시 이론에 비추어 언급하자면, 정체성의 형성은 동일시(identification)와 역동일시(counteridentification) 그리고 비동일시(disidentification)의 모습을 가진다(Pêcheux, 1975). 여기서 동일시 국면들은 특정 주체의 형성을 세 가지로 범주화한 것이며, 역동일시와 비동일시는 동일시 하지 않기의 속성을 보여준다. 동일시와 역동일시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라면, 비동일시의 경우는 독자적인 경로를 만든다. 특정한 정체성의 형성은 이 세 가지 동일시 국면의 어떤 측면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체성의 형성이 동일시 국면을 통해서 구조화될 때, 이는 항상 현실적인 시공간좌표 속에서이며 구체적인 물질장치를 전유하고 있다. 이때 이 물질장치는 가시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면서, 문화적인 의미관계를 내재하고 있는 인공물이며, '경관(景觀, landscape)'이라고도 불린다. 이른바 정체성은 경관이라는 문화적 인공물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구성되고 있고 경관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관건이다. 특정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경관이 개입하는 양상에 대한 이해작업은 인간주의와 급진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경관을 인간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치중립적 실체로서 파악하지 않으며 경관 스스로가 말을 한다고 여긴다. 즉, 경관이라는 것은 특수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사회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Nash, 1999: 217-218).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경관은 개인들의 자서전이라고 비유된다. 경관은 인간 외적인 어떤 힘이 작용하며 생긴 것이 아니라, 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며, 바로 그러하기에 경관 형성에서 개인들 각자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Samuels, 1979). 경관은 특정 장소에 살아가는 사

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며, 누군가 경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경관의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Meinig, 1979). 인간주의 경관론에서 정체성의 형성을 논의하자면,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개인들 각자가 선호하는 경관취향을 통해서 드러난다. 예컨대, 잉글랜드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선호하는 경관미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골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표출된 전원시와 같은 경관이다(Lowenthal & Prince, 1965). 그런데, 인간주의 경관론에서 본 정체성은 경관을 만든 주체의 취향이 드러난다고 볼 때, 일정한 영역성의 산물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하나의 취향이 선택된 것이기에, 배제의 어떤 측면을 보여준다. 다만 선택한 입장이 다른 입장에 대해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양상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내부자가 선택한 경관취향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재현한 필연적 차원이라고 본다면, 다른 경관취향은 우연적인 차원으로 비교의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인간주의 경관론에서 정체성은 특정 경관과의 적극적인 동일시하기의 과정으로 형성되며, 동시에 '소극적으로' 다른 경관에 대한 동일시하지 않기가 개입한다.

급진주의 지리학에서 경관은 단지 주관적인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과정의 현실적인 모습 그 자체가 드러난 것이다. 즉, 경관은 일종의 의미체계로서, 하나의 텍스트이며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본 결과이다(Cosgrove & Daniels, 1988; Duncan, 1990). 경관은 사회집단의 특수한 관점 혹은 사회 이데올로기를 상징화한다. 경관이 특정 집단의 관점이나 의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권력관계가 뒤따른다. 특정 집단의 관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다른 의도들과 충돌하면서 일정한 변형을 가져온다. 기존의 입장이 더욱 공고해지거나 아니면 약해져서 주변화된다. 주변화되는 경우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배제되는 국면이며, 타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상황이다. 이처럼 급진주의 지리학에서 경관은 단지 물질적인 구성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변모를 가져올 수 있는 권력효과이다. 권력효과로서 경관을 볼 경우, 그것은 동일자의 경관과 타자의 경관으로 구분된다(Atkins et al., 1998). 동일자의 경관은 내부적으로 '우리'라는 소속감을 야기한다. 타자의 경관은 동

일자에 의해 외부적으로 '그들'로 범주화되면서 배제된다. 경관은 영역화의 과정에서 경계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영역화의 과정은 영역 만들기의 상황이며, 경계의 창출과 재현 그리고 제도화의 수순을 밟는다. 이른바 영역적 인식과 그 외양의 가정, 상징적이면서 제도적인 틀지우기 과정을 겪는데, 이때 경관이 그 매개고리 역할을 한다(Paasi, 1997). 다시 말해서, 경관은 현실적인 사회관계에서 포함과 배제의 과정을 도출하면서 영역화를 추구하며 영역적 정체성의 구심이 된다. 예컨대, 서구인들이 오리엔트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은 유럽과의 대조 효과를 통해서이다(Said, 1978). 이른바 서구는 문명의 장소인데 비해, 오리엔트는 야만의 장소로 경관화한다. 유럽인들의 문화정체성은 오리엔트 경관을 타자화 하면서 혹은 역동일시 하면서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공간스케일과 정체성의 형성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항상 지표상의 특정 위치에서 구성된다. 이때, 그 위치는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국면의 특정 지점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매듭의 결과이고, 이는 단일한 차원으로 범주화될 수 없다. 즉,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일면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측면을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수준을 개념화하는 스케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마을이나 읍구와 같은 생활공간을 국지적 스케일(local scale)이라고 칭하고, 국가주권에 의해 강력하게 경계 설정된 민족적 스케일(national scale)이 있고, 그 사이에 지역적 스케일(regional scale)이 있다(Levy, 1995). 그런데, 이러한 공간 스케일을 단지 물리적인 크기나 수준의 차이로만 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유는 사회적 관계의 특수한 계기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스케일은 크기나 수준의 측면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관계의 산물로서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스케일들은 공간과 장소, 그리고 환경을 포함하는 복합체에서의 관계적인 요소이다(Howitt, 1998; Marston, 2000). 각 스케일들은 지리적인 총체성과 구성과 역학에서의 요인인데, 국지적인 스케일이라 할지라도 그 총체성들을 담보하고 있으며 그

런 총체적 실재의 특정 계기들이다.

또한 스케일들이 사회적 관계의 흐름을 포착하려면 미리 정해진 존재론적 범주로 이해하기보다는, 현실을 틀지우는 인식론적 관점이 요청된다(Jones, 1998). 스케일들은 미리 고정되어 있는 존재화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유동성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론적 장치이다. 스케일들은 '결과'로서 의미를 가지지 않고 '과정'으로서 구성되는 측면이다. 예컨대, 지구화는 민족국가의 위상을 현저히 변모시키고 있고, 이는 스케일적 사고의 대상이다. 과거 포디즘의 시기에 민족국가는 다른 민족국가와의 경쟁을 위해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불균등 발전을 조정했다. 그러나, 포스트포디즘의 시기가 되면서 국내의 불균등 발전은 더 이상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지역과 도시 스케일이 지구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등장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EU나 NAFTA와 같은 대륙적 스케일에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사회관계가 결부되기 때문이다(Brenner, 1997; Marston, 2000). 요컨대 지구적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경제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지 민족국가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스케일에 걸친 사고가 필요하다. 즉, 스케일들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상호침투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는 '공간적 스케일들의 비계설정(scaffolding)'이라고 칭한다(ibid.). 스케일들의 비계설정은 위계적이고 층화된 형태를 구성하는 작업이며, 이것은 현실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금까지 언급한 스케일적 사고에 바탕하여 정체성의 형성을 논의해 보자. 어떤 민족이 동일성을 확보하려고 할 때, 혹은 하나의 민족이 되려고 한다면, 일련의 스케일적인 기제를 구성한다. 특정 민족은 내부적으로 상상의 공동체와 발명된 전통에 기초하여 통합적인 구심력을 확보한다(Anderson, 1983; Hobsbawm & Ranger, 1983). 특정 민족의 동일성은 민족적 스케일을 넘어서 다른 민족들과 대비되어 그 효과로서 성립된다. 내부적으로도 차별화의 과정을 통해서 특정 지역의 정체성이 민족적 동일성의 핵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다시 특정 지역내부에서도 국지적인 장소가 동일화와 차별화의 흐름을 창출한다. 이른바 지역주의는 지역적인 스케일에서 영역화된 정체성의 산물인

데, 지역적인 스케일에서 주민들이 동일성을 확보한 결과이다(Knight, 1982). 지역정체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반영된 지역주의가 민족정체성의 측면과 조화롭지 못한 경우에는 자주독립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테면 스코틀랜드의 지역주의는 지역적 스케일의 장소에 뿌리를 둔 민족주의적 성향이면서 그 장소는 스코틀랜드의 영역적 정도를 보여준다. 그 영역적 정도는 소위 영국적인 것(the British)과의 이질성을 낳으면서 분리독립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국적인 것의 내용을 보면 잉글랜드적인 속성이며, 잉글랜드 내부에서도 남부 지방의 전원 경관이 구심점이다(Rose, 1995). 남부 지방의 경관이 가져다 주는 상징이 바로 잉글랜드적인 것 그 자체이고 전체로서의 민족을 나타냈다. 잉글랜드 남부지방은 도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 조화로운 관계가 드러난 촌락경관의 장소였다. 경관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적 질서부여를 통해서 창출되었고, 합의와 계속성의 의미를 보여주는 민족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잉글랜드 촌락경관의 장소감은 문학과 예술, 건축물 등에서 다양하게 재현되었고, 특히 세계대전 중에 강한 호소력을 가졌다. 즉 특정 지역의 장소에 바탕한 정체성이 민족정체성으로 전화하고 민족 외부와의 갈등관계를 통해서 공고히 된다. 이른바, 잉글랜드 정체성은 Cotswold 라는 장소가 가지는 고유성에 바탕하여 구성되었다. 다른 지역의 경관들과 비교하여 차별화되면서 잉글랜드 정체성의 상징적 구심이었다(Brace, 1999). 이렇게 가장 독특한 국지적 장소의 경관이 지역정체성의 핵심이 되고 나아가 민족화되었다.

3. 분석결과

1) 동일시 과정으로서의 제주정체성

제주 지역교과서에서는 어린이들이 제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다양한 동일시 대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지역주체들이 지역적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일시 대상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탐색하면서 제주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 동일시 대상의 사례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지역주민들의 집단적 기억인 문화재, '고장을 빛낸 인물들', 그리고 관념체계로서의 지역정신 등이 대표적이며, 본 논의에서는 지역의 문화재를 동일시 사례로서 다루고자 한다. 문화재는 지역의 공유된 역사를 반영하면서 집단적 기억을 부추긴다고 볼 때, 이러한 문화재를 애호하고 동일시하면서 지역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역 문화재의 일반적 가치 확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내용의 문화재가 적극적인 동일시의 대상이 되는 가이다. 교과서에서는 지역의 여러 문화재 중에서 일부가 선택적으로 재현되었다고 볼 때, 그 선택의 잣대와 결과가 논점이다.

문화재가 독립된 하나의 제재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pp. 55-57)¹⁾, 제재의 도입부는 지역의 문화재를 조사하고 보존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관덕정, 관덕정 안의 벽화, 불탑사 오층 석탑이 선정되었고, 부가적으로 지역 문화재의 종류를 유형화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제시된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민속도구 등이며, 제주 향교, 영감놀이, 담팔수 자생지, 연자매를 재현하는 경관 사진이 제시되었다. 지역의 여러 문화재들 중에서 유교문화경관과 불교문화경관이 주요 답사 대상이 되었다. 여타의 문화재들은 문화재를 유형화하는데 도구적으로 결합될 뿐이다. 관덕정과 불탑사 오층 석탑은 적극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었는데, 제재명에서 알 수 있듯이 관덕정이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관덕정의 경우, 외부의 경관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의 벽화가 두 가지 제시되고 있다. 벽화의 내용은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가 파견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 아울러 내용서술에서는 관덕정이 보물로 정해진 이유가 제시되면서, 사회적인 의미가 다루어진다. 즉,

“이 건물은 세종 대왕 때에 지은 목조 건물로, 그 속에 있는 벽화와 함께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어 보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구나. ... 관덕정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 응, 관청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으로 쓰기도 했단다”(pp. 53-4).

물론 불교문화경관인 불탑사 오층 석탑의 경우

도 경관 사진이 제시되지만 그 사회적인 의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불탑사 오층 석탑에 대해 조사하여 보자'는 탐구과제가 부가되고 있다. 한편, 칠머리 당굿과 영감놀이, 오돌또기, 삼성혈, 만장굴, 초가집, 갯길, 돌하르방 등을 나머지 문화재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속적이거나 민속적인 문화경관들은 적극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단지 문화재의 한 종류로 확인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제주 지역교과서에 적극적인 동일시의 대상으로 재현된 문화재는 유교문화, 불교문화, 무속 및 민속문화의 순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 문화재를 학습하는 상황은 향토조사반 활동과 연표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된 모습을 보인다(pp. 68-78). 향토 조사활동은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간주된다. 연표만들기 과정은 지역의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향토조사활동은 교재화하는 그 자체가 의미있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무엇이 조사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교과서의 사례는 제주 성지, 향파두리성지, 대정성지, 성읍성지, 명월성지 그리고 봉수대와 연대 등이다. 모두가 전쟁에 관련된 역사경관이며, 대외적인 침략에 대비한 변방의 요새들이다. 제주성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려시대 이후에 외적의 침략에 대비한 것이다. 이러한

표 1. 교과서에 실린 향토조사반활동 보고서 사례

향토조사반활동보고서	
1. 조사일시:	1990년 0월 0일 0요일
2. 조사한 곳:	애월읍 고성리 향파두리성
3. 조사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성은 몽고의 침입에 맞서 끝까지 싸우기 위해 쌓은 성이다. • 돌과 흙으로 쌓은 독특한 형태의 성으로, 원래의 길이는 6km였다고 하나, 현재 1km 정도를 옛 모습대로 다시 쌓았다. • 700여 년 전에 몽고의 침입으로 우리 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4. 느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써 왔다. • 다른 나라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싸웠던 삼별초의 정신을 본받아야 하겠다.

역사경관의 교재구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단지 사실적인 차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느낌이나 태도의 형성까지 의도하고 있다 (p. 71).

즉, 가시적인 역사경관을 조사하여 그 내력을 확인하고 경관 창출자의 의도에 동일시하는 차원이 모색되고 있다. 한편, 연표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내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례로 제시된 역사경관은 연복정, 일관현, 대정 향교, 오현단 등 유교문화의 유적지이다.

2) 제주정체성의 영역적 구성

지역교과서에서 제주정체성의 영역적 구성은 여러 단원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 요소는 제주 지역이 하나의 영역 단위로서 다른 영역 단위와 접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교과서는 영역의 접합관계를 통해서 제주 지역의 고유한 단위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서술되고 있다. 제주 지역이 다른 영역 단위와 영향력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영역화의 양상을 가질 때, 개방적인 영역성과 배타적인 영역성을 구분할 수 있다. 제주 지역이 개방적인 영역성을 가지는 경우는 자율적인 삶의 단위인 다른 영역적 단위와 공존하는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다. 상호교류와 이해과정으로서 영역의 접합이 상황적으로 다루어진다. 예컨대, 삼성혈 신화는 제주인들이 최초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이 기술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주 지역 외부와의 교류 상황이 다루어지고 있다. 삼성혈에는 세 신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동쪽 바닷가에 나무상자가 떠내려 왔고, 거기서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 정황이다.

“그 상자 속에는 파안 옷을 입은 세 처녀와 망아지, 송아지, 그리고 오곡의 씨앗이 들어 있었다. 또 세 처녀를 데리고 온, 동해 벽랑국의 사자도 나타났다. 그 사자는 세 신인을 향해 두 번 절하고 엎드려 말했다. ‘저는 동해의 벽랑국 사자입니다. 저희 임금님께서 말씀하시길 [서쪽 바다의 섬에 세 신인이 있어 앞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부부가 될만한 짝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세 공주님을 모시고 왔사오니, 세 분께서 각각 부인으로 맞아들여 큰일을 이루소서”(pp. 49-50).

신화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 지역은 독자적인 영역 단위로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

로 발전했다는 상황이 묘사되었다. 이 상황은 제주 지역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영역 단위이며, 육지와 대등한 관계를 통해서 고유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교류를 통해서 공존을 모색하는 차원이다.

개방적인 영역성이 다루어지는 다른 사례는 타지인이 제주지역을 방문하고서 지역이미지를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다. 또한 제주인의 입장에서 타지인에게 지역을 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상황은 일상생활에서의 만남과 교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편지를 주고 받는 상황으로 재현되고 있다.

“은영 언니! 파란 하늘과 그보다 더 파란 바다, 높은 한라산, 아직도 눈에 선하게 떠올라. 제주도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여러 곳을 안내해 주어서 고마웠어. 친구들에게 한라산과 바다, 폭포, 동굴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며 설명하자, 모두 부러워했어. ...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느낀 것은 제주 도민들이 전통을 아끼고 문화를 사랑한다는 거야. 나도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어. 그럼 안녕”(p. 61).

외지인이 제주를 방문하고 난 뒤 가지는 지역 이미지를 제시하여 어린이들의 영역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외지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지역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제주 지역 어린이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상황 설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타지인의 긍정적인 시각이 내지인에게는 적극적인 동일시의 대상이 되게끔 관계가 구조화되었다.

다음으로 제주인의 입장에서 타지인에게 지역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내지인의 입장에서 타지인에게 지역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지인이 보기에 특이한 점을 강조한다. 제주 지역의 고유성을 외부와의 경계설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타지인에게 알려주는 과정이다.

“현주에게. 어제는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민속촌 구경을 갔었단다. 민속촌에는 옛날 초가집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잘 알 수 있었어. 초가집은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집이래. 그런데 지붕은 바둑판처럼 매어 놓은 집줄이 신기하더라. ‘우리 제주도의 초가집들은 왜 집줄로 뽀뽀 얹어매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어. ... 너도

잘 알겠지만, 우리 제주도는 바람의 고장이라고 할 만큼 바람이 많거든. 여름철에는 태풍이 불고, 겨울철에는 차갑고 세찬 북서풍이 불어 오니까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집줄로 묶어 놓은 것이지”(p. 160).

제주인들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문화경관인 초가집을 지역의 고유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초가집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제주도의 것은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특수한 자연환경에 적응한 산물로 부각시키고 있다. 제주 지역이 가지는 고유성을 내부에서 찾고 타지인에게 알려주는 상황설정은 영역적 효과를 낳는다.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과정을 인지함으로써 영역성을 가지게 된다. 다만 이것이 상대방에 대해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게끔 하는 것은 아니고 '차이'의 확인을 통해 정체감을 가지는 수준이다.

지역교과서에서 대외적인 영역성을 나타낼 때, 배타적인 경우는 외부로 적극적으로 타자화하는 경우이다. 외부와의 차별화 양상에서 배타적인 타자성이 강제되면서 동일시하지 않는 대상을 창출하고 있다. 외부로 적극적인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내부적으로 동일성을 확보한다. 이 경우는 전쟁 경관, 영웅과 위인을 매개로 하면서 지역적인 동일시를 추구할 때 잘 나타난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막아 내기 위하여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산봉우리에 봉수대를 만들고, 바닷가에는 연대를 세웠다. ... 지금도 제주도 곳곳에는 봉수대와 연대가 남아 있어, 고장을 스스로 지키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의지를 알 수 있다”(p. 70).

왜구는 제주도를 침략하는 타자이며, 타자와의 경계는 '봉수대'와 '연대'라는 경관으로 가시화된다. 어린이들은 봉수대와 연대의 모습과 그 역할을 확인하면서 외부와의 경계를 확인한다. 이러한 배타적인 경계의 확인은 다른 역사경관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향파두리성, 대정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 성들은 몽고와 왜구의 침략에 맞서서 구축한 대외적인 경계이기에 타자를 확인하도록 해준다. 즉, 어린이들이 침략자인 타자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내부적으로 동일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3) 공간스케일의 측면에서 본 제주정체성

제주정체성의 스케일적 구성을 살펴 볼 때, 논의의 출발점은 지역적 스케일이다. 제주의 정체성은 지역적 스케일을 기준으로 내부적으로는 국지적 스케일이, 외부적으로는 민족적, 대륙적 그리고 지구적 스케일이 관련된다. 지역적 스케일 내부에서 동일시의 경관이 선정되고 있는데, 이들은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경관은 심미적인 체험을 유발하는 수려한 장소의 경관들이며, 한라산과 해안의 경관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문화경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들이 동일시 대상이 되고 있다. 문화재는 특히 역사유적지와 연행예술로 나누어지면서 동일시되며, 모두가 물리적으로는 지역 내부의 국지적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들 중에는 단지 지역 내부의 고유성으로만 그 성격이 논의될 수 없는 여지가 있다. 즉, 지역교과서에서는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스케일에 바탕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지역 외부의 스케일로까지 확장하여 그 고유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의 고유성이 민족적 스케일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문화재 학습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유교문화경관이 가장 적극적인 동일시의 대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아울러 민족의 변방으로서 지역을 상징화하고 있다. 유교문화의 경우, 제주 지역의 자생적인 산물이라기 보다는 한반도 본토로부터 유입된 지배문화이다. 아울러 봉수대와 연대와 같은 유적지들은 지역의 타자를 겨냥하기보다는 민족적 타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에 와서도 지역의 고유성이 지역 외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것이 자부심의 대상이 된다는 논의형식이 구조화되어 있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환경이 우리 나라를 물론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다(p. 10). ... 대전에 살고 있는 은아는 어머니와 함께 사촌 언니가 살고 있는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 제주도에겐 구경할 만한 곳이 매우 많았다”(p. 61).

이와 같이 지역의 고유성이 민족적인 스케일에서 관계설정이 되기에, 제주 지역은 지역적 스케일 외부의 일부로서 다루어진다.

지역교과서에서 지역적인 것의 의미관계가 민족적 스케일보다도 더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삼성혈 신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드러난다(pp. 49-50). 삼성혈 신화는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제주 사람들의 탄생 신화이다. 제주 지역의 뿌리는 대륙적인 스케일에서 문화교섭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주의 정체성이 지역 내부에 국한된 상황에서가 아니라, 또한 한반도와 외의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륙적인 스케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주의 정체성이 지역교과서에서 민족적 스케일 외부에까지 확장하여 드러나는 또 다른 경우는 제주 지역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제주라는 지역 단위가 특정한 관계 국면 속에서 다루어지는 상황설정이다. 교과서 1단원 처음 부분에서 제주도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나온다. 제주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을 알기 전에 그 출발점으로 먼저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한다. 이때 제주의 위치 파악은 여러 스케일에서 시도되고 있다. 제주도의 위치 지도를 제시하면서 내용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 나라의 남쪽 바다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태평양이 있어서 세계로 뻗어 나가기에 좋은 곳이야. 그 주위에는 크고 작은 섬이 많이 있지.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섬은 마라도란다”(p. 10).

이러한 제주의 위치가 미래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이 부가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제주 지역이 단지 우리 나라 전체에서 가지는 위치 관계뿐만 아니라 대륙적 스케일과 지구적 스케일로 확장하여 고려해 볼 때,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경우는 제주의 고유성이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나라 안팎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었고(p. 124). ... 제주 국제 공항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제주도의 대문이기도 하다. 관광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 국제회의 참석하기 위해 오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오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pp. 125-6).

제주의 정체성은 미래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도 모색이 될 수가 있고, 이때 사회적인 관계 수준은 민족국가 스케일을 넘어서 대륙적 스케일, 지구적 스케일로까지 확장된 상태이다.

4.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지역교과서에서 제주정체성이 드러난 바를 살펴보았다. 제주 지역의 교과서에서 동일시 대상은 여러 가지 가지적인 경관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재들은 대표적인 동일시의 대상인데, 유교문화와 무속문화, 민속문화 등이 혼재되어 있고, 유교문화가 지배적인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정체성이 영역적으로 구성되는 상황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개방적인 영역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먼저, 제주 지역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서 문화적 고유성을 부각시킬 때이다. 배타적인 영역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변방으로서의 ‘제주’ 지역에서 전쟁경관이 강조될 때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보건대, 지역담론과 지역교과서에서 경계설정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 물론 양자 모두 제주지역의 정체성을 내부의 고유성에서 찾고 있으며, 동일시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제주정체성의 영역화 측면에서 볼 때, 그 차이가 드러난다. 제주정체성이 지역담론에서 영역적으로 구성될 때, 배타적인 영역화의 대상은 부당한 중앙권력이었다(현길언, 1986). 오늘날에 와서는 민족국가의 일부가 되어 정치적으로는 단일하지만, 문화적 고유성이 계승의 대상이다. 지역담론에서는 한반도 본토와의 문화적인 차별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송성대, 1998; 김항원 외, 2000). 이 경우 그러한 차별화는 과거 중앙권력과의 배타적인 영역화 과정에서 창출된 역사적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역교과서에서 대외적으로 배타적인 영역화의 대상은 다른 민족이었다. 대외적인 영역화의 경계선이 이제 지역적 경계라기 보다는 민족의 경계이다. 지역교과서에서 제주 지역은 민족국가의 변방 혹은 요새라는 장소감이 생기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요컨대, 교과서에서 지역정체성이 영역적으로 구성될 때, 지역적 경계의 ‘느슨함’과 민족적 경계

의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교과서에서 제주정체성이 영역화될 때, 그 경계선이 '민족화' 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역교과서에서 제주의 정체성이 민족정체성의 차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대외적인 경계설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고유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유교문화는 지역담론의 정체성 내러티브에서 타자화의 대상이지만, 지역교과서에서는 동일자로 규정된다. 지역담론에서는 제주정체성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무속문화경관을 동일시하고 유교문화경관은 배제하고 있다(현길언, 1992). 하지만 지역교과서에서는 둘 다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유교문화경관을 제주적인 것으로 표상하고 있다. 한편, 지역담론에서는 제주 지역 전체에서도 국지적인 장소에 자리한 경관과 관행들이 정체성의 구심이 되고 있다(송성대, 1998). 그러나, 지역교과서에서 정체성의 구심은 지역 내부에서 엄격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고, 동일시 대상이 지역담론의 경우에 비해 혼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주의 지역교과서는 민족국가의 스케일을 기준으로 제주정체성을 부상시키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역의 고유성은 주로 민족국가의 스케일에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지역담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륙적 스케일이나 지구적 스케일에서 제주의 고유성이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담론과 차이를 낳고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지역의 고유성을 확인하는 단위가 민족국가의 스케일을 기본으로 한다. 지역교과서에서 민족적인 것들이 제주의 고유성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은 그것이 어떤 의미효과를 가지는지 검토사안이 된다. 동일시의 경관이 지역 내부의 국지적인 장소에 자리한다고 해서 항상 지역의 고유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가가 논란거리이다. 물리적으로는 국지적인 장소에 위치하지만, 경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성이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다른 관계국면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역교과서에서 제주의 정체성은 민족국가의 스케일을 기본 구도로 하고 있다. 지역교과서에서 제주의 고유성은 민족국가의 일부 혹은 민족적인 것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즉, 제주

지역에 자리한 민족적인 것들이 그 지역의 고유성으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 지역교과서에서는 민족정체성을 고려한 지역정체성의 제한적 구성이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주 지역교과서의 정체성 재현방식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자면, 기본적으로 지역의 고유성이 잘 드러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담론들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체성의 재현방식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즉, 제주 지역교과서에서 재현하고 있는 지역적인 것의 의미가 과연 교육과정 지역화의 본래적인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요컨대, 제주 지역교과서에서는 온당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역정체성이 주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 지역에서 지역교과서를 통해 교육과정 지역화를 추구할 때에는 제주 지역의 정체성이 정당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註

- 1) 이하 본문 중의 쪽 수 표기는 분석자료인 제주 지역 교과서의 쪽수이다.

文 獻

- 교육부, 1996, 아름다운 제주도,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연기.
- 김수진(역),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서울, 321-375(Hall, S., 1992,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Hall, S., et al(ed.), *Modernity and its Futures*, Open University Press, London).
- 김일기 외, 1998, 제 7차 교육과정의 상세화를 통한 사회과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교육부 위탁 과제 답신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김일기, 1983, "地誌教育의 제문제," 석천이찬박사 화갑기념논문집간행회 편,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 교학사, 서울.
- 김항원 · 김진영 · 고성준 · 정근형, 2000, 전환기 제

- 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대학교출판부, 제주.
- 박승규 · 김일기, 1998, "사회과 지역학습에서 '지역'의 의미 탐색," 사회과교육연구, 5,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연구회, 71-90.
- 박승규 · 심광택, 1999, "'경관'과 '기호' 표상을 활용한 지역학습," 대한지리학회지, 34(1), 85-90.
- 박홍규(역), 1995,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서울 (Said, E., 1978, *Orientalism*, Penguin, Harmondsworth).
- 송성대, 1998, 제주인의 해민정신: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개정 증보판), 파피루스, 제주.
- 윤형숙(역), 1993,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 서울 (Anderson, B.,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London).
- 이정우(역), 1996, 철학사전: 인물들과 개념들, 동녘, 서울 (Clement, E., et al., 1994, *Pratique De La Philosophie De A Z*, Haite, Paris).
- 이한순 외(역), 1997,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서울, 139-160 (Panofsky, E., 1955, *Iconographie und Ikonologie*, in Kammerling, E.(ed.), 1994, *Ikonographie und Iconologie. Theorien, Entwicklung, Probleme*).
- 최석영(역), 1995,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서울 (Hobsbawm, E., & Ranger, T.,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현길언, 1986, "제주전설과 제주사람들의 삶의 양식," 양순필 · 김순택 외, 제주 문화의 재조명, 도서출판 一念, 서울, 240-259.
- 현길언, 1992, "제주문화의 그 의식의 底流," 제주국제협의회, 전환기의 제주, 신라출판사, 서울, 31-43.
- Atkins, P., Simmons, I. and B. Roberts, 1998, 'Other' landscape, in *People, Land and Time*, Arnold, London, 239-252.
- Brace, C., 1999, Finding England everywhere regional identity and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1890-1940, *Ecumene*, 6(1), 90-109.
- Brenner, N., 1997, Global, fragmented, hierachical: Henri Lefebvre's geographies of globalization, *Public Culture*, 24, 135-67.
- Cilla, R. D., Reisigl, M., & R. Wodak, 1999,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ies, *Discourse & Society*, 10(2), 149-173.
- Cloke, P., 1999, Self-other, in Cloke, P., et al(ed.), *Introducing Human Geographies*, Arnold, London, 43-53.
- Cosgrove, D. & Daniels, S, 1988, Introduction: iconography and landscape, in Cosgrove, D. & Daniels, S.(ed.), 1988,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Essays on the Symbolic Representation, Design and Use of Past Environ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10.
- Cosgrove, D., 1984, The idea of landscape, in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Croom Helm, London, 13-38.
- Duncan, J. S.,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 the Kandyan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owitt, R., 1998, Scale as relation: musical metaphors of geographical scale, *Area*, 30, 49-58.
- Jones, K., 1998, Scale as epistemology, *Political Geography*, 17, 25-28.
- Knight, D. B., 1982, Identity and territory: geographical perspective on nationalism and regionalism,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2(4), 524-531.
- Levy, J., 1995, The spatial and the political: close encounters, in Benko, G. B. & Strohmayer, U.(ed.), *Geography, History and Social Scienc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227-242.
- Lowenthal, D. & Prince, H. C., 1965, English landscape tastes, *Geographical Review*, 54(3), 309-46.
- Luke, A., 1999,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Keeves, J. P. & Lakomski, G.(ed.), *Issues in Educational Research*, Pergamon, Amsterdam, 161-173.
- Marston, S. A., 2000,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219-242.

남호엽 · 김일기

- Meinig, D., 1979, Reading the landscape: an appreciation of W. G. Hoskins and J. B. Jackson, in Meinig, D.(ed.),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5-244.
- Nash, C., 1999, Landscape, in Cloke, P., et al(ed.), *Introducing Human Geographies*, Arnold, London, 217-225.
- Paasi, A., 1997, Geographic perspective on Finnish national identity, *Geojournal*, 43, 41-50.
- Pêcheux, M., 1975,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ies*, trans., Nagpal, H., 1982, St Martin's Press, New York.
- Rose, G., 1995, Place and identity: a sense of place, in Massey, D., & Jess, P.(ed.), *A Place in the World?*, The Open University Press, Oxford, 87-118.
- Samuels, M., 1979, The biography of landscape, in Meinig, D.(ed.),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51-88.

(2001년 9월 12일 접수)